

미술

세상 속 풍경 표현

- 풍경 속의 멀고 가까운 표현하기

학년 반

이름



‘원근’이란 무엇일까요?



원근이란, 멀고 가까운 정도예요.

그림에서는 입체인 세상을 납작한 종이에 표현하기 위해

‘원근’이 사용 된답니다.



‘원근’의 설명을 따라 써 보아요!

(읽으며 따라 써 보아요!)

원	근	이	란	?															
	멀	고			가	까	운		정	도									

원근이 표현 되어 있는 작품들을 확인해보아요!



똑같은 나무와 언덕과 하늘이 있는 사진 이에요.

이 두 사진 중 원근이 사용된 사진에는 ‘원근’이라고 적고 그렇지 않은 사진에는 ‘x’라고 적어보아요.



여기서 힌트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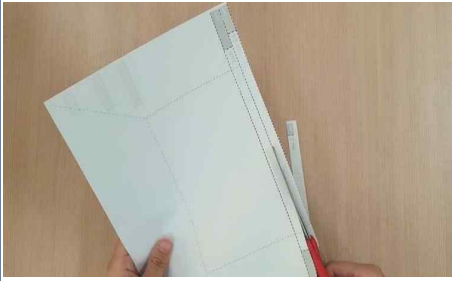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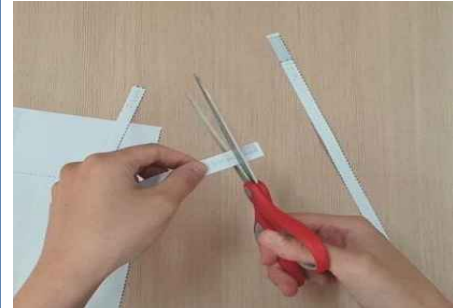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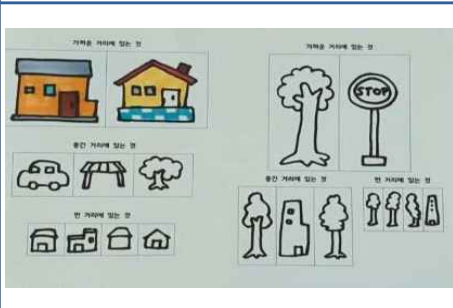


그림 중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사진의 나무들은 모두 크기가 다르게 일부러 그렸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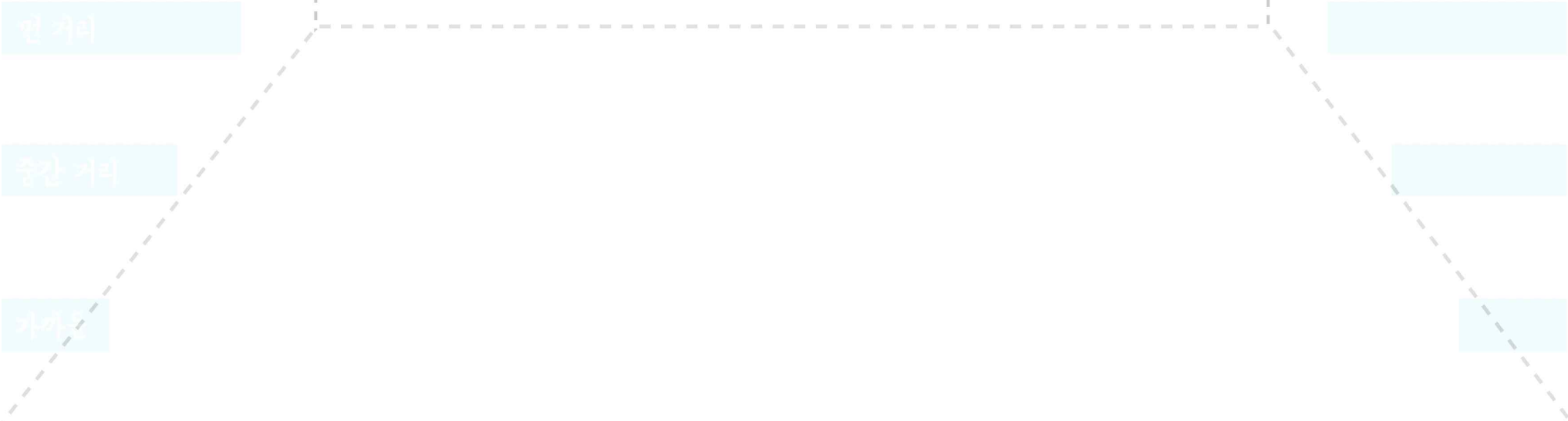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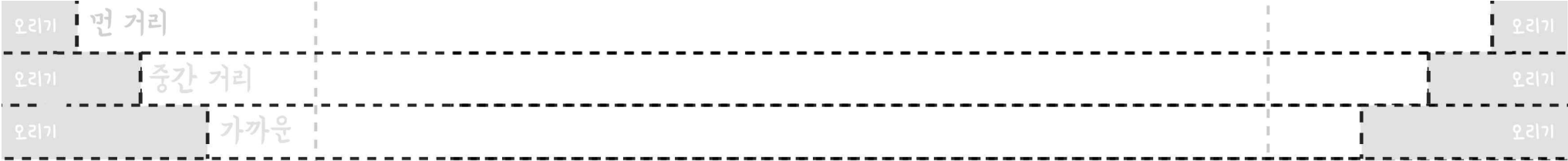
크게 앞에 배치할수록 **가까워 보이고** 작게 뒤로 배치할수록 **멀리 있어** 보인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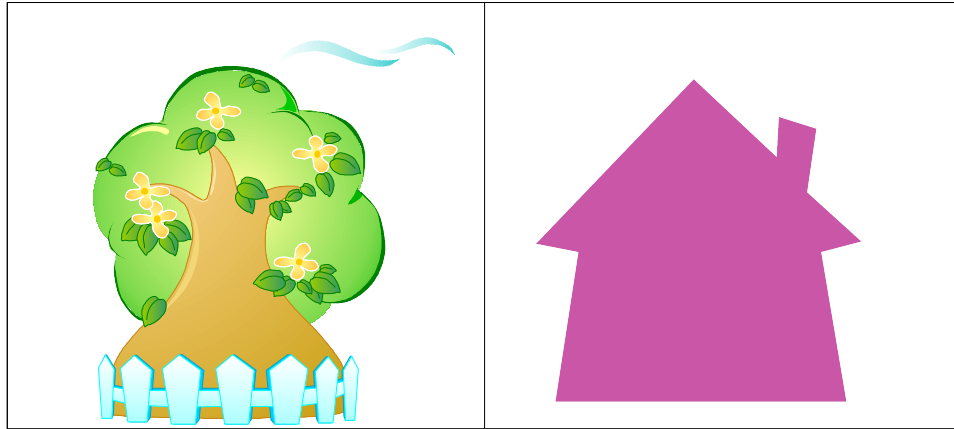
원근을 이용하여 나만의 풍경을 꾸며 보아요.

(3쪽에 도안이 있고, 4쪽에는 도안에 붙일 사진들이 있어요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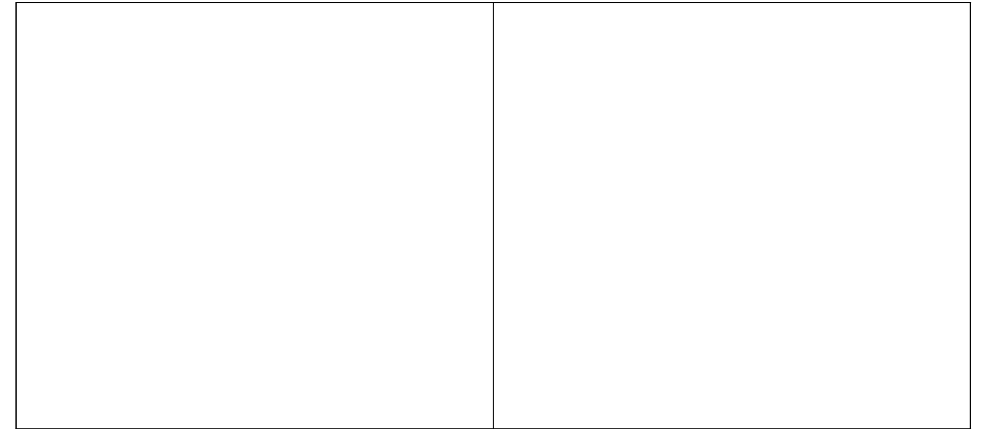
1		<p>3쪽 도안 위쪽의 거리선을 잘라요. 거리선은 총 3개가 나와요. ※(먼거리, 중간거리, 가까운거리)</p>
2		<p>거리선 양쪽에 있는 회색부분을 잘라요.</p>
3		<p>배경 양쪽의 세로선을 접어요. 그리고 가운데에는 원하는 배경을 그려요.</p>
4		<p>4쪽에 있는 사진들을 잘라요. ※(원하는 대로 그리고 싶은 친구들을 위에 안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빈칸도 함께 넣어둘게요.)</p>
5		<p>잘라놓은 세 개의 거리선을 양쪽 벽에 붙여요.</p>
6		<p>그리고 제일 작은 사진이나 그림은 제일 안쪽(먼 거리)에 붙이고 중간 크기는 중간 거리에 가장 큰 그림은 제일 바깥쪽(가까운 거리)에 붙여주면 완성!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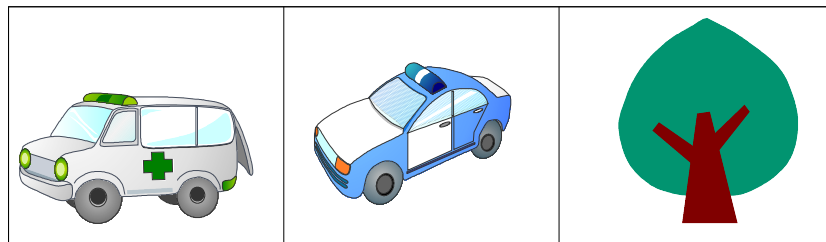
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



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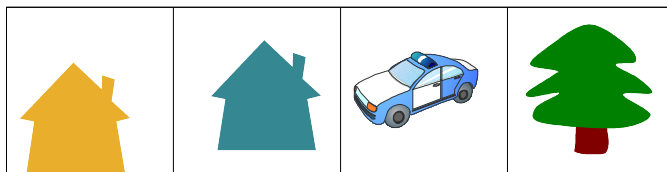
중간 거리에 있는 것



중간 거리에 있는 것



먼 거리에 있는 것



먼 거리에 있는 것

